

녹색소비와 녹색생산

박 영 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I. 들어가는 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두 세기를 걸쳐 사는 세대로서 우리에게서 어떻게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열 것인가 하는 과제가 부과되어 있다.

세계는 눈앞에 다가선 새로운 100년을 ①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세계가 국경이 없는 하나의 지구촌화하여 지구정치, 지구경제, 지구환경의 세기로 ②국가주권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는 지방화와 국제기구, 경제기구, 민간단체 등의 사회조직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③20세기가 경제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서 사람들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세기의 삶의 질이란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해온 삶의 내용이 물량적인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쾌적한 환경과 함께 사는 공동체사회를 주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하며 보다 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말한다. 세계는 지금 동서냉전의 종식(우리나라는 아직 해결하지 못함)으로 21세기를 향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있으며 새로운 인류역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구환경보전을 들고 있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 오늘처럼 다방면의 검토가 세계적으로 되어진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지구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었던 회의기간동안 환경문제에 대한 보도가 세계의 TV나 신문지상을 통해 연일 취급되어 세계적으로 열화와 같은 환경붐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때 이래 우리 국민의 환경의식이 점차적으로 높아져서 현재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89.8%와 전문가 95.3%(국민의식조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96. 3)가 오늘의 세계문제로 환경문제를 꼽고있을만큼 되었다.

오늘의 남은 문제는 높아진 의식에 따른 실천이 뒤따라주지 않고 있어 우리의 환경은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II. 환경문제란

환경이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생명체의 삶과 발달에 외부적인 영향을 주는 조건들의 총체라고 되어있다. 생명체에 따라서 그 환경의 개념은 달라진다. 그렇게 다양한 환경이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지구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환경이란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주변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적인 환경으로는 생태환경 인공적인 것으로는 사회 및 문화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을 필두로 하는 모든 생물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은 생태환경이다. 생태환경은 생명체의 삶의 터전이며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계에서의 현실은 생명의 근원인 지구생태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이것이 현대문명의 위기로인이다. 세계는 온통 천재(한발, 홍수, 이상기온, 엘니뇨 현상 등의 이변 등)와 인재(체르노빌원전사고, 페르시아만전쟁, 인도 보팔의 카바이드공장사고, 미국 로브커넬의 다이옥신 사고 등)로 인해 불안 속에 떨고 있다. 인재와 천재는 서로 연계되어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와는 먼 거리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북의 동포들이 곡물의 흉작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현상이나 우리의 상수원이 오염되어 죽은 물이 되어가다가 하면 사인을 명쾌하게 가려내지 못하고 있는 백로와 물고기들의 폐죽음이 우리의 자연생태계의 변화와 오염상태를 입증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교각붕괴사건, 대형백화점붕괴사건, 가스폭발사건 등 엄청난 인명피해사건들로 해서 어떤 재앙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 불안하다.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 등을 제공해주는 환경이다. 즉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고 있는 식품, 물, 공기를 비롯한 고도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그것과는 반대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폐기물을 정화해주는 것이다. 즉 자연은 인간에게 자원을 공급하고 배출한 폐기물을 정화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이 쓰고 버리는 쓰레기를 미생물 등에 의해 분해한 후 식물 등의 영양분으로 환원하거나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광합성의 요소가 되는 것 등이다. 이들 둘의 관계는 인간활동과 지구생태계의 순환기능의 일부이다. 결국 환경문제란 이러한 순환기능을 파괴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지나친 인간활동으로 지구생태계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정화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III. 환경위기의 원인

오늘의 생태계 파괴현상은 지난 20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민수용품 생산에 투입되면서 소모품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하는 현대인들의 소비미덕의 생활양식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구증가문제와 도시화문제 그리고 빈부의 격차문제들이 지구환경파괴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늘의 환경위기를 초래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우리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첫째는 인간들이 최근까지 모든 것을 인간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해왔다는데 있다. 지구와 생물권이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지구상의 동식물을 포함하는 모든 물체가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과는 달리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여겨왔던 서구에서는 더욱 그래왔다.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를 보게 된 것은 아폴로 우주선이 발사된 불과 20여전 전의 일이다. 그때 인간이 발견하게 된 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지구가 하나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며 인간이 생물권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인류의 사고의 전환은 제2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둘째는 만물의 삶의 터전이며 미래의 모든 세대의 거처이기도 한 생태계를 현세대인이 그들만의 것인 양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지구의 마지막 세대인 것처럼 함부로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손으로부터 신탁 받은 것이다.”라는 케냐의 격언에서 보듯이 우리는 지구를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쓰고 있다. 지구환경보고서인 <우리의 공동미래>에서 주장하고 있는 21세기 세계 만들기의 핵심원칙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SSD”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지구의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현세대의 자연자원의 남용은 미래세대의 몫을 앞당겨 쓰는 것이 되며 후손에게 빈곤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는 인간이 소모하고 있는 자연자원이 무한대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60년대 말에 세계의 현인들의 모임인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는 고갈되어 가는 자연자원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인간사회의 성장의 추구가 지금과 같이 물질 우선, 경제 우선이 지속되는 한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지구는 환경오염, 수자원, 에너지, 식량고갈에 의해 붕괴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자원은 유한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현세대인이 뒤늦게(80년대 들어서) 깨달은 넷째 잘못은 지구의 자정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70년대의 자원고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해온 인류는 오늘날 자원고갈의 위협보다 더 급한 폐수 및 폐기물처리문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현대사회가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의 질과 양은 지구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일찍부터 제기되어오고 있는 <산업공해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근래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이다. 산업공해문제는 지역적인 문제 또는 특정활동에 의한 것으로서 일과성인 현상이다. 그에 비해 지구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라는데 차이가 있다. 뿐만아니라 후자의 경우는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며 인류의 존속문제와 관련있는 사안이다.

산업공해의 경우는 가해자=기업, 피해자=일반인 등의 도식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구환경문제인 경우 모든 사람이 가해자, 피해자, 관리자라는데서 생산과 소비양식이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IV. 해결책은 무엇인가

1972년 스톡홀름에서의 유엔인간환경회의와 20년 후인 1992년 리우에서의 환경과개발회의를 비롯한 크고 작은 환경관련 회의들이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다. CFC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와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수많은 국제협약도 체결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실천계획들이 세워지며 인류복지를 위한 지표들이 양산됨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문제는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오늘의 지구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누구나가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사항의 합의도출이 어려운 것이 문제해결의 딜레마이다. 그것

은 국제정치, 경제, 사회구조 및 체제가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남북간의 이해대립”을 필두로 하는 각양각색의 국가간의 이해대립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의 세계인구가 80%의 지구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머지 20%의 자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80%의 인구는 생존을 위해 또는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는데서 남북간의 또는 국가간의 이해대립은 첨예하게 교착되어있다.

오늘의 환경문제는 지역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으나 지역환경 문제가 누적되어 지구환경문제를 대두시킨 것으로 보면 문제의 근원은 하나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구환경보전운동의 표어가 바로 그런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오늘날 지구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해결은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리고 개인은 개인대로 환경친화적인 정책, 생산, 생활을 각기 제자리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데서 이루어진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처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세대인의 생산과 소비 양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환경문제의 일차적인 원인이 분별없는 이윤추구와 소비미덕에 터잡은 사회풍조와 인간의 끝없는 욕망 및 나만이면 된다는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편리함과 풍요함을 선호해 「전기톱으로 버터를 썰기까지 한다」는 미국의 생활수준을 추구한 나머지 우리는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 문제, 공기문제, 먹거리문제, 대두아 혹은 무뇌아 탄생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구적으로는 오존층파괴, 산성우, 지구온난화 등의 지구위기의 경고가 있다. 이러한 난제들은 우리의 생산과 소비 양식의 획기적인 변혁 없이 그 해결은 불가능하다.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 양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V. 소비양식과 생산양식은 변혁되어야 한다

현세대인에게 부과되어있는 최대의 과제인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은 그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인간활동의 원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활동의 원점에서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행동양식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생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전기 한등, 물한컵 아끼는 것, 쓰레기를 줄이는 것, 사무실에서 종이한장 아끼는 것, 사무기기를 아끼는 것, 생산현장에서 자원을 아끼며 폐기물을 감축하고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 생산품은 내구성을 강하게 하며 폐기시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작은 실천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유엔에서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정상들이 모였던 지난 '92년도의 지구정상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21세기의 행동계획인 <의제21>을 협의한 바 있다. 40장으로 만들어진 <의제21>의 제4장에서는 지구환경 악화의 주원인을 지속불가능한 형태의 소비와 생산양식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변혁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된 국가들의 생산과 소비양식이 더욱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23일에서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지구정상회의+5>로 불리는 유엔환경특별총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총회는 '92년 리우에서 합의한 <의제21>과 기후변화와 오존층파괴문제 등에 관한 국제환경협약의 리우회의 이후 5년간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새로운 다짐을 위한 국가정상들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회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외무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등의 일행이 대거 참가했다.

금번총회에서 지난 5년간의 <의제21>의 실천성과점검에서 특히 부진했던 과제로 지적된 것이 바로 제4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변화문제였다. '92년도의 지구정상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과소비문제가 비판의 표적이었던 것은 두말할 것 없다.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점은 우리나라도 '92년이래 세계인구의 20%인 과소비층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활형편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는 삶의 질을 회구하기에 이르렀다. (소득가설에 의하면 환경문제는 국민소득이 5000불 이상일 때부터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된다고 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환경친화적인 소비억제의 새로운 삶의 양식과 사회풍조는 모색되어야 한다.

삶의 질을 회구하는 세기에 들어선 국민의 또는 지구시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는 수많은 국제협약이 만들어지고 <의제21>의 실천사항을 감시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위원회>가 유엔에 설치되었으며 세계무역기구나 그린라운드니 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교역 문제를 관장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환경보전기본법>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규제가 만들어지고 생산업체의 생산양식과 국민들의 소비양식의 변화를 기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와 지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VI. 녹색생활을 해야 한다. (소비자의 과제)

녹색생활이란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생활양식으로서 덜 쓰고, 덜 버리는 생활양식이다. 그러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환경을 걱정하는 녹색소비자들의 삶의 지혜로서 계속 개발되어 전파되어야한다. 그 일반적인 형태의 예를 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일상생활의 환경점검(Eco Check)을 하는 생활이다. 에너지절약, 물질약 및 재사용,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대중교통수단활용, 적정량의 물질사용 등의 소비억제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녹색소비생활은 물건을 구입할 때부터 시작된다. 구입하는 물건에 사용된 자재의 채취과정, 물건이 만들어진 과정, 사용하고 버리기까지의 과정을 따져보며 꼭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폐기시에 재자원화가 가능한가, 오염원이 되지 않는가 등을 고려한다. 식품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생산되어서 가공되고, 유통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녹색소비자는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 공한다. 외국의 경우 자선활동을 위한 기금모금을 겸하고 있는 자원 재사용을 위한 중고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학가와 중소도시에서 성업중이다. 그곳 사람들의 중고품사용에 대한 인식은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러한 상점들이 모두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은 그 나라의 국민의 공익을 위하는 인식의 정도를 말해주고 있어서 모범이 된다.

다른 나라의 녹색소비자들은 자주 쓰지 않는 기구 등은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이웃간에 공유하고 있다. 물건의 최종폐기는 우리 녹색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분리수거해서 재자원화하고 있으며 비용이 더 들더라도, 품질이나 외양에 상관없이 재생제품을 우선 구입해서 사용한다.

녹색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외국에는 이미 그런 생활정보를 담고있는 많은 출판물 또는 홍보물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제공되어있어 녹색소비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생활지침구실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녹색 삶을 위한 정보가 현재로서는 지역사회의 주부조직이나 환경운동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제한된 자료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원하고 있는 개개인의 생활태도에 변화를 유도하는 <에코가족운동>이 환경운동체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생산품의 수명을 최대화하는 운동으로서 재사용가게운영의 움직임도 싹트고 있어서 큰 변화를 기대해본다.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소비양식의 변혁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소비양식의 변혁은 생산양식의 변혁을 이끌어낸다.

VII. 녹색생산을 해야한다. (기업의 과제)

<환경산업>이라는 말의 사용이 일반화된것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환경산업이 21세기에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전망되면서 발전된 국가에서는 이 산업을 신중산업으로 발족하거나, 환경을 고려한 신제품의 생산과 새로운 기술개발에 열중하기에 이르렀다.

세계가 직면한 근래의 경제불황으로 그 열기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환경산업의 시장은 확대일로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소비자의 환경보전의식이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세계는 60년대 후반~70년대 중반의 <공해방지시대>의 산물인 환경보전은 경제 성장과 배치된다는 성장중시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금은 환경보전은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국가에 따라서는 환경보전을 경제성장에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감인 것은 우리의 기업은 아직 환경산업의 추진이라기보다는 공해방지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고도성장기의 <공해방지형 산업>과 유횼과동시기의 <자원절약형 산업> 등의 환경산업이 시기의 상황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며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두가지 형태의 환경산업으로 진

전되고 있다. 하나는 공해방지 및 환경보전형 산업 또하나 "Re"산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새로운 산업이다.

“Re”산업이란 수선(Repair), 재사용(Reuse) 그리고 재활용(Recycle) 등의 두분자에서 따온 말이다. 생산품의 수명을 최대화하고 자원을 아끼는 생산양식의 산업을 지칭하는 것이다.

'90년도 후반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21세기의 기업의 성장조건은 하나는 바로 녹색소비양식의 변화에 따르는 제품생산과 기술개발 그리고 기업경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성장산업은 환경산업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국내소비자의 요구도 문제려니와 우리나라 기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제교역에서의 환경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녹색생산과 경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미 정부의 규제책이 적용되고 있다)

녹색생산은 녹색소비자가 견인해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녹색소비자들은 의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앞서 지적했듯이 이미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수요자의 소비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공급측인 기업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있다.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 소비와 폐기물배출을 최소화하는 생산구조마련, 재활용을 고려한 생산, 환경친화적인 소재 사용, 제품의 개발 등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에 등장하여 적용되기 시작한 생애주기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원자재의 입수로부터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그리고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친화성이 고려되는 생산양식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생산품의 품질인증제도가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의 그린셀(Green Seal), 독일의 푸른천사(Blue Angel), 일본의 에코마크(Eco-Mark) 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5년전에 만들어져 현재 <환경마크>라는 이름으로 녹색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녹색소비자들은 환경산업체들이 보다 많은 생필품(현재는 원자재 생산이 다수)을 환경마크상품으로 생산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자유경제 그리고 시장원리하에서는 기업의 생산성효율이 중요하며 값싸고 질 좋은 물품을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판매하는가 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환경투자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환경대책이 뒤쳐지게 된 이유이다. 그러나 환경경시로 인한 환경파괴는 곧 기업활동의 기반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며 결국은 경제성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지구환경문제는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을 요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기업운영이 가능한 상태일때 이러한 대비를 해두는 것이 기업이 지속가능해지며 소요비용을 줄이는 것이 될 것이다.

VIII. 맺는 말

경제성장이 인간의 생활을 풍요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반면 자연적, 사회적인 환경을 역으로 악화시킨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다.

환경보전이나 경제성장이냐 하는 양자택일이 아닌 이들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낭비형 사회>에서 <순환형 사회>로 우리의 사회를 변혁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는 녹색생활을 하는 것으로 기업은 녹색생산을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생필품을 공급해야 하는 기업의 생산양식은 ①경제(생산)활동을 자연의 정화능력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고 ②환경기술개발로 환경친화적인 생산활동을 활성화하고 ③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서 적정량 생산과 적정량 폐기에 기여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생산업체에게 환경친화적인 생산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바라건대 소비자와 기업의 하나된 지구환경보전에의 의지가 실천으로 옮겨져서 쾌적한 환경과 삶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녹색소비와 녹색생산은 여성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도 강조해둔다.